

언론정보연구
50권 2호, 2013년, 67~100
<http://icr.snu.ac.kr/jcr>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내용분석을 통해 본 『언론정보연구』 50년*

양승목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smyang@snu.ac.kr

김규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qchan@kcti.re.kr

『언론정보연구』는 국내 최초의 언론학 연구소인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현 언론정보연구소)에 의해 1964년 2월 『신문연구소학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언론정보연구』의 창간 50주년을 맞아 동 학보가 지난 50년 동안 형식과 내용 면에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 분석하고 그러한 변화가 제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지난 50년을 다섯 시기로 나누어 『언론정보연구』의 발간정보 및 편집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내용분석을 통해 게재 논문의 저자, 사용언어, 연구패러다임, 연구영역, 연구방법 등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결과는 『언론정보연구』가 지난 50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제도적 변화와, 외부적으로는 언론학의 학문적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학보의 개방성과 게재논문의 이론적·방법론적 다양성을 확대해 왔음을 보여 준다.

KEYWORDS 『언론정보연구』 • 내용분석 • 언론정보연구소 • 신문연구소 • 『신문연구소학보』 • 한국언론학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연구기금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문제 제기

1963년 3월 25일 설립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창설 50주년을 맞았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The Institute of Mass Communication)인데, 언론학 관련 연구소로는 신문연구소가 국내 최초였다. 신문연구소는 1994년 3월 1일자로 명칭을 언론정보연구소(The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로 개정하였으므로, 언론학 분야에서는 언론정보연구소가 한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연구소인 셈이다.¹

언론정보연구소가 창설 50주년을 맞으면서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언론정보연구』도 50돌을 맞게 되었다. 신문연구소는 설립 다음 해인 1964년 2월에 자체 학술지로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학보』를 창간하였다.² 당시 창간호에 게재된 연구소장의 발간사(육지수, 1964)를 보면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학보』가 연구생들의 연구 성과를 엮은 것임을 알 수 있다.³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학보』는 1968년에 신문대학원 설립으로 신문연구소가 신문대학원의 부속기관이 되면서 명칭이 『신문연구소학보』로 단순화된다. 동시에 학보도 연구생들의 집단적 연구결과보다는 교수나 연구자들의 개별 논문 중심으로 구성되기 시작했다.

25년 이상 동일한 체제로 발행되던 『신문연구소학보』는 1994년 3월에 신문연구소가 언론정보연구소로 명칭이 바뀌면서 학보의 제호도 『언론정보연구』로 개정되었다.⁴ 다시 20년이 흘러 『언론정보연구』

1 신문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연구소 가운데 하나이다. 인문사회계 연구소 가운데 신문연구소보다 먼저 설립된 연구소는 1961년 2월에 상과대학에 설립된 한국경제연구소가 유일하다. 한국경제연구소는 1975년에 명칭이 경제연구소로 변경되었다.

2 영문 제호는 *The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Mass Communication*.

3 신문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기자 재교육과 매스컴 연구였다. 이를 위해 언론사 및 정부의 위탁생과 4년제 대학졸업자 등 20명을 매년 연구생으로 모집했는데, 이들 연구생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매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 2013년 2월에 50권 1호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로써 『언론정보연구』는 창간 50돌을 맞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언론학계로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즉 이제 우리도 『한국언론학보』 외에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문학술지를 하나 더 갖게 된 것이다. 『한국언론학보』는 1960년 4월에 창간된 『신문학보』의 후신으로 한국 언론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지이지만, 1969년 11월에 2호가 발간될 때까지 9년의 공백기가 있었다. 반면에 『언론정보연구』는 출발은 4년 늦었지만 공백기 없이 꾸준히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발간된 언론학 전문학술지라고 할 만하다.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비록 소책자이기는 하나 이것이 우리나라 매스컴 연구의 마일스톤이라고 자부하며 기꺼이 세상에 내놓는 바이다”(육지수, 1964, 3쪽)라고 했던 초대 소장 육지수 교수의 감격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난 50년은 현대사 그 자체다. 5·16 쿠데타로 엄혹한 군사독재시대가 시작되었고, 보릿고개를 넘어 산업화의 길을 달렸으며, 험난한 민주화의 역정을 거쳐 마침내 세계가 놀라는 인터넷 강국, 한류의 국가로 성장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언론정보학이라 불려도 좋고 커뮤니케이션학이라 불려도 좋은 한국의 언론학은 엄청난 발전을 했고, 『언론정보연구』는 그러한 변화와 성장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50년 역사의 흔적을 추적하는 일이다. 내용분석이라는 양적 방법론에 기대어 우리는 『언론정보연구』가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변해 왔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언론정보연구』의 편집위원회, 특집 논문, 사용 언어, 학술지 등재 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가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변해 왔는지 개관하고, 50년을 약 10년씩 다섯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논문 저자와 논문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지난 50년 동안 『언론정보연구』의 편집위원회, 특집 논문, 사용 언어, 학술지 등재 등 기본 정보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언론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저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언론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연구패러다임, 연구 영역, 연구방법 등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보여주며,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1) 내용분석

본 연구는 1964년 2월 창간호부터 2013년 2월 발행된 50권 1호까지 『언론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개별 논문이며, 학보에 수록되었더라도 발간사, 축사, 치사 등과 같이 명백하게 연구 성격의 글이 아닌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동일 논문을 2개 이상의 언어로 게재하거나 번역한 경우 한 건으로 간주하였다.⁵ 그 결과 최종 분석 대상 논문 수는 312편이었다. 분석의 전문성과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용 분석을 위한 코딩은 연구자들이 직접 담당하였다. 내용분석 변수와 유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⁶

5 대표적인 예로 1983년 발간된 제20집은 신문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5편의 논문이 영문과 국문으로 중복 게재되었으나 각 1건으로 취급하였다.

6 부록으로 제시된 “『언론정보연구』 내용분석 코드북” 참고.

(1) 기본정보

『언론정보연구』의 발간단위(권/호) 정보와 발행연월, 편집위원회, 등재 여부 및 특집논문, 연속논문, 사용언어를 파악하여 논문별로 코딩하였다. 권/호와 발행일, 편집위원회는 표지 또는 판권장에 기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특집논문은 표지 또는 목차에 특집 또는 기획 논문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며, 특집 논문과 일반 논문의 구분이 없는 경우 특집 주제에 맞추어 연구자가 특집 논문 여부를 판단하였다. 사용언어는 한국어, 영어, 기타언어로 분류하였는데, 두 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복수로 코딩하였다.

『언론정보연구』는 2007년 여름 학술지 평가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해 12월 31일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3년 후인 2010년 여름에는 등재지 선정을 위한 학술지 심사를 신청하였고 그해 12월 말 통과하였다. 한국연구재단 규정 상 심사 신청 년도에 발간된 논문은 모두 소급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정식 등재후보지가 되기 이전에 발간된 43권 2호와 44권 1호 게재논문부터 46권 2호까지는 등재후보지 논문으로, 47권 1호와 2호에 실린 논문부터 현재까지는 등재지 논문으로 코딩하였다.

(2) 저자정보

논문별 저자 수와 저자 속성을 코딩하였다. 저자 수는 논문 첫 장에 기재된 저자명을 기준으로 하였고, 저자 속성은 1저자와 2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파악하였다. 저자 소속은 논문 게재 시점에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신문연구소, 신문대학원, 구 신문학과 포함) 소속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였고, 외부 기관 소속인 경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신문연구소, 신문대학원, 구 신문학과 포함) 출신 동문 여부를 파악하였다. 해외 기관에 소속된 저자는 별도로 구분하였다. 저자 직위는 대학 전임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비전임교수 또는 비전임연구원, 학생(연구생, 과정생, 수료생), 기타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동일 인물의 경우에도 게재 시점에 따라 다른 항목으로 코딩될 수 있다.

(3) 논문정보

논문 주제와 내용에 따른 연구패러다임, 데이터/연구의 성격, 연구영역, 연구방법, 연구대상 국가를 코딩하였다. 연구패러다임은 연구대상에 대한 인식론적 고려를 기준으로 경험적 연구 중심의 실증주의와 해석적 및 비판적 연구 중심의 비실증주의로 구분하였다.⁷ 또한 데이터와 연구의 성격에 따라 양적-가설검증 연구, 양적-기술적(descriptive) 연구,⁸ 질적-해석적 연구(문화연구, 역사/법제/윤리 포함), 순수이론연구(데이터 없음), 정책연구⁹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연구영역은 역사(언론사/언론학사), 미디어법제/윤리/사상, 저널리즘/정치커뮤니케이션(방송뉴스, 인터넷뉴스 포함), 방송(TV/라디오/케이블/위성/IPTV), 인터넷/SNS/모바일/HCI, 설득커뮤니케이션/광고홍보, 문화연구/문화사(영화연구 포함), 대인커뮤니케이션/수사학, 국제커뮤니케이션, (농촌)수용자 연구, 언론학 연구동향/정체성, 방법론, 언론학교육, 국민생활시간조사 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실험, 서베이, 내용분석, 역사적, 규범적/문헌연구, 담론분석/내러티브(텍스트) 분석, 심층인터뷰, 2차분석(secondary analysis), 네트워크분석 등으로 유목을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및 연구의 대상이 어느 나라인지 그 국가를 코딩하였다. 연구방법과 대상 국가는 최대 2개까지 복수 코딩하였다.

7 연구 패러다임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저널을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분석한 포터 등의 연구(Potter, et al., 1993) 및 핀크와 갠츠의 연구(Fink & Gantz, 1996)를 참고해 경험적(empirical), 해석적(interpretive), 비판적(critical) 연구로 구분했는데(양승목, 2009 참조), 예비분석 결과 비판적 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이 극히 소수여서 해석적 연구와 비판적 연구를 합쳐 비실증주의로 분류하였다.

8 양적 데이터를 활용하지만 연구문제만 제시하고 가설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9 연구목적상 정책연구의 성격이 명백한 경우.

2) 시기 구분

『언론정보연구』는 1964년 창간호부터 2013년 50권 1호까지 총 58권이 발행되었다. 권당 평균 논문 수는 5.4편이었다.¹⁰ 1968년 11월 발간된 5집에는 단지 두 편의 논문만 실려 가장 적었고, 1999년 12월 발간된 36집이 가장 많은 10편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5집 수록 논문이 이처럼 적었던 것은 1967년에 발간되었어야 할 4집이 신문대학원 개원과 맞물려 1968년 7월에 발간되었고, 이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5집을 발간하면서 논문 확보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다 논문(10편)을 수록한 36집은 새 밀레니엄(2000년)을 목전에 두고 “21세기를 위한 언론학: 새로운 좌표와 과제”라는 주제 아래 특집 논문 6편을 게재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이처럼 『언론정보연구』는 연구소 내부 직제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964년 2월 『신문연구소학보』가 창간된 뒤 1968년 신문대학원이 개설되었고, 1974년 신문대학원이 폐지되고 1975년부터는 현재와 같은 언론정보학과(구 신문학과) 체제로 전환되었다. 1983년 연구소 창립 20주년 특집호가 발간되었고, 1994년 현재와 같은 『언론정보연구』로 제호가 변경되었다. 2004년 연 2회로 중간¹¹된 뒤 편집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2007년) 및 등재지(2010년)로 선정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언론정보연구』의 지난 5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1964년(창간), 1968년(신문대학원 설립), 1974년(신문대학원 폐지), 1975년

10 『언론정보연구』는 2003년(40집)까지 연간으로 매년 1회 발간되었고, 발행단위도 권이나 호가 아니라 집(輯)이었다. 2004년(41권 1호)부터 연 2회 발간하게 되면서 권/호 단위를 도입하였다.

11 2003년까지 매년 12월에 발간되다가 2004년 연 2회로 중간되면서 학기 일정과 맞추어 8월에 1호, 익년 2월에 2호가 나오는 체제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2호가 매년 초에 나오는 것이 다소 혼란스럽다는 판단 아래 2008년 2월호를 44권 2호 대신 45권 1호로 발간하여 권/호와 발행연도를 맞추었다.

(학과 체제로 전환), 1983년(창립 20주년 특집호), 1994년(제호 변경),¹² 2004년(연 2회 중간)이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 특별한 해로 볼 수 있다. 이 특별한 해들을 기준으로 50년 역사를 시기 구분한다면 우연하게도 10년 단위로 시기를 구분하는 통상적 방식과 거의 일치한다. 우선 1964년 창간부터 1974년 신문대학원 폐지까지를 제1기,¹³ 1975년 신문학과 설립부터 1983년 신문연구소 창립 20주년까지를 제2기, 1984년부터 연구소 창립 30주년을 맞은 1993년까지를 제3기, 1994년 제호 변경에서부터 연구소 창립 40주년인 2003년까지를 제4기, 2004년 『언론정보연구』가 연 2회 발간으로 중간된 때부터 연구소 창립 50주년을 맞은 2013년까지를 제5기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언론정보연구』 시기 구분

구분	특징	빈도(건)	비율(%)
1기 (1964 ~ 1974)	신문연구소 및 신문대학원	48	15.4
2기 (1975 ~ 1983)	신문학과 설립 ~ 연구소 20주년	47	15.1
3기 (1984 ~ 1993)	연구소 30주년	50	16.0
4기 (1994 ~ 2003)	제호변경 ~ 연구소 40주년	68	21.8
5기 (2004 ~ 2013)	연 2회 중간 ~ 연구소 50주년	99	31.7
합계		312	100

12 31집 서두에 게재된 “제호를 바꾸면서”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연구영역이 확장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과거 ‘신문연구소’라는 명칭에서 오는 오해와 제한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 분야를 수용하고자 '94년 3월 1일 자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로 명칭을 개칭하고 『신문연구소학보』 또한 『언론정보연구』라는 새로운 제호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다.

13 신문대학원 설립 이전에 발간된 학보는 3권에 불과하고 신문대학원 설치 이후에도 학보 형식이나 내용이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으므로, 창간호부터 1974년 발간된 11호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3. 기본 정보 개관

1) 편집위원회 구성

『언론정보연구』의 편집위원회 명단이 학보에 처음 수록된 것은 1991년의 28집이다. 1991년 이전에는 편집위원회 명단을 학보에서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편집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기록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¹⁴ 1991년 28집에 처음 수록된 편집위원회 명단에는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강현두 교수를 비롯해 박명진, 강명구, 박승관 교수 등 4명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이때부터 1995년 32집까지 편집위원 4인의 명단이 학보에 기재되기 시작했는데, 연구소장의 이름이 명단 맨 앞에 나온 것으로 보아 연구소장이 사실상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나머지 3인은 연구소 직제상의 연구부장과 자료도서부장에 언론정보학과 교수 1인 정도가 참여하여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96년 33집부터는 편집위원이 3인으로 축소되고,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하였다. 편집위원 2인은 연구소의 연구부장과 자료도서부장이었다. 1999년 36집부터 2002년 39집까지 4년간 다시 편집위원회는 4명으로 운영되다가 2003년 40집부터 다시 3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때까지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특집 논문을 기획하는 식의 적극적 활동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2005년 봄에 『언론정보연구』는 편집위원회의 대폭적인 개편을 맞게 된다. 즉 편집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연구소장이 겸했던 편집위원

14 신문연구소(언론정보연구소)의 조교로 근무했던 저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연구소 학보의 편집과 발간은 연구소장과 조교의 몫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고 수집은 대개 연구소장의 청탁과 개별 연구자의 투고에 의해 이뤄지는데, 일단 원고가 수집되면 조교의 편집 작업을 거쳐 인쇄소로 넘겨졌다.

장의 임무를 분리하고, 논문심사 규정을 강화하여 편집위원회의 역할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에 강명구 교수가 편집위원장에 위촉되면서 윤석민 연구소장과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고,¹⁵ 교외와 해외를 아우르는 편집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다. 2005년 8월 편집위원회 개편 후 첫 발간된 42권 2호를 보면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11인, 편집자문위원 8인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편집위원 11인 중 6명은 해외대학 교수로 위촉하였고, 5인의 국내 편집위원 가운데 4명이 외부 대학 소속일 정도로 편집위원회의 개방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2009년 가을 이재현 교수가 편집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언론정보연구』는 역사상 가장 큰 형식적, 내용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2010년 2월 발간된 47권 1호부터 편집위원회를 5인으로 축소하고 편집위원 전원이 외부인사로 위촉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판형과 표지 디자인을 변경하였으며, 전문출판사에 학보 편집 및 인쇄, 발간을 의뢰하여 유료 판매를 시작하였다.¹⁶ 내용적으로는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의 이원체제를 도입하여, 논문의 시의성과 심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전문출판사를 통한 『언론정보연구』의 유통은 자체 웹사이트 구축과 더불어 학보의 접근성을 크게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과거에는 『언론정보연구』가 한정 수량의 비매품이었지만 2010년부터 발간 즉시 시중에 유통되어 누구나 구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2007년부터 유료 학술정보 사이트를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논문들을 2010년 자체 웹사이트¹⁷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15 그 후로 양승목 연구소장-강남준 편집위원장, 강남준 연구소장-이재현 편집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1년 이재현 교수가 연구소장에 취임하면서 편집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16 판매 가격 18,000원

17 <http://icr.snu.ac.kr/jcr>

2) 학술지 등재

『언론정보연구』는 창간 이후 역사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국내 언론학 분야의 최고 학술지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교육부 산하의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이 국내 학술지를 평가하고 이것이 교수 채용이나 업적 평가에서 중요 요소로 활용되면서 비등재지 신분이었던 『언론정보연구』는 양질의 논문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우수한 원고를 확보하고 학보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이유로 『언론정보연구』의 등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사실 앞서 살펴 본 2005년의 편집위원회 개편과 동료심사(peer review)제도 강화는 학술지 등재를 위한 출발점이기도 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2007년 『언론정보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고, 3년 후인 2010년에는 마침내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학술지 등재 여부에 따라 시기 구분을 한다면 <표 2>와 같다.

표 2. 학술지 등재 여부에 따른 시기 구분

구분	특징	빈도(건)	비율(%)
1964~2006	미등재	237	76.0
2007~2009	등재후보	28	9.0
2010~2013	등재	47	15.1
합계		312	100

3) 특집논문

총 312편의 논문 가운데 특집 논문은 52편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였다. 특집논문 형식은 1983년 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논문으로 처음 등장하여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간헐적으로 나타

나다 사라졌고, 2010년 기획논문 체제가 도입되면서 다시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3년 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특집호에는 총 5편의 특집논문이 수록되었다. 모든 논문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작성되었는데, 2명의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3명의 외국 학자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한국과 일본 교수들이 각각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현황과 전망을 기술한 가운데, 윌버 슈람(Wilbur Schramm)은 “정보의 제4시대”라는 제목으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고찰하고 커뮤니케이션학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5년에는 프랑스 학계의 연구경향을 반영한 메디올로지(mediologie) 특집호가 발간되었는데, 같은 해 11월 열린 국제학술세미나 ‘메디올로지, 권력, 언론’에서 발표된 논문 3편으로 구성한 것이다. 1996년에는 21세기 언론학의 미래와 교육의 향방을 살피는 특집논문 3편이 실렸고,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동경대(사회정보연구소) 심포지엄이 처음 개최된 1997년에는 한일 양국의 사회정보화 현황과 과제를 다룬 특집 논문이 3편이 실렸다. 서울대-동경대의 한일 미디어 심포지엄 특집호는 2002년에 한차례 더 발간되었다.

이른바 뉴 밀레니엄을 한 해 앞둔 1999년 발간된 36집은 “21세기를 위한 언론학: 새로운 좌표와 과제”를 주제로 6편의 특집 논문을 수록하였다. 이 또한 그해 11월에 열린 특별 세미나의 결과물이었다. 강현두, 추광영 교수가 21세기 언론학과 매체변화의 양태를 개괄적으로 전망하고, 양승목, 강명구, 박명진, 김광수(고려대학교) 교수가 각각 디지털시대 언론학, 저널리즘, 방송영상, 광고홍보 분야의 연구 과제를 전망하였다.

2001년에는 중국 언론과 언론학 연구에 관한 특집논문 5편이 실렸는데, 그 첫 번째 논문인 차배근(2001)의 “조선조후기의 북학론을 다시 생각해 본다: 중국언론에 관한 특집에 제하여”는 특집호 서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논문은 박제가의 『북학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며, 오늘날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조선 후기의 그것과 상당히 닮아 있으며 우리가 과연 중국이란 거대한 이웃 나라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

표 3. 특집 논문 주제

권/호	연도	주제	특집 논문 수	해외저자 논문
20	1983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5	3
32	1995	메디올로지	3	2
33	1996	21세기 언론학과 언론학 교육의 방향	3	
34	1997	한일 양국의 사회정보화 현황과 과제	3	2
36	1999	21세기를 위한 언론학: 새로운 좌표와 과제	6	
38	2001	중국의 언론과 언론학연구	5	4
39	2002	한일 미디어연구의 새로운 방향	3	2
47-1	2010	컨버전스와 다중 미디어 이용: 질적 계보학적 접근	4	
47-2	2010	컨버전스와 다중 미디어 이용: 양적 메타분석적 접근	3	
48-1	2011	트위터란 무엇인가: 다학제적 접근	4	1
48-2	2011	트위터, 네트워크, 정치	3	
49-1	2012	변화하는 뉴스패러다임: 뉴스의 개념과 생산양식	3	
49-2	2012	변화하는 뉴스 패러다임: 뉴스의 유통과 소비	2	
50-1	2013	한류 콘텐츠와 지구화	5	
합계			52	14

문을 제기하였다. 논문 말미에 중국 언론 특집호를 내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다짐했는데, 이후로 중국 특집호는 발간되지 않았지만 차배근의 중국 언론 연구논문과 중국학자들의 논문이 몇 편 게재되었다.

2001년 이후 특집 논문은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2010년 47권 1호부터 기획 논문 체제를 도입하면서 재등장한다. 이 시기의 특집 논문은 이전 시기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인다. 2010년 이전에는 연구소가 특별히 마련한 국제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 발표된 논문을 특집 논문으로 게재하고 저자들도 해외 학자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편집위원회가 트위터, 한류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커뮤니케이

선 현상이나 이론적 의미가 큰 주제를 골라 필자를 섭외하여 특집을 기획하는 형태였고 필자들도 국내 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이들 기획 논문들은 공개세미나를 거쳐 연말에 단행본으로도 발간하기 때문에, 논문의 활용도가 높고 연구소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언론정보연구』에 수록된 특집 논문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한편, 근래에는 보기 드물지만 1970~1980년대에는 하나의 주제로 여러 편의 논문이 연속적으로 게재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허식은 “생태학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를 1976년, 1977년, 1980년 3회에 걸쳐 발표하였다. 차배근도 “태도변용학설들에 대한 평가적 연구고찰”을 1978년, 1979년, 1985년에 걸쳐 3회 게재한 바 있다. 차배근은 이후로도 “대조선인 일본유학생 『친목회회보』에 관한 연구”를 1998년과 1999년에, “중국근대신문의 선구지 『순환일보』에 관한 소고”를 2005년 2월과 8월 호에 각각 두 차례씩 게재하였다.

4) 사용 언어

『언론정보연구』의 논문은 대부분 한국어로 작성되었지만 일부 논문의 경우 외국어로 번역되었고, 역으로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이 한국어로 번역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부 논문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중복 게재된 경우도 있다. 제1기(1964~1974년)에 한국어와 영어로 중복 게재된 논문이 1편, 제2기(1975~1983년)에 한국어와 영어로 중복 게재된 논문이 5편 있었다. 제4기(1994~2003년)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중복 게재된 논문과 한국어와 중국어로 중복 게재된 논문이 각 1편씩, 제5기(2004~2013년)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중복 게재된 논문이 1편 있었다.

논문 편수 기준으로 전체 논문 312편 가운데 34편(10.9%)이 외국어(또는 한국어와 함께) 작성되었다(<표 4> 참조). 특히 제4기(1994~2003년)에는 전체 논문의 22%가 외국어로 발표되었고, 제2기(1975~1983년)에도 약 15%의 논문이 영어나 기타 외국어¹⁸로 발표되었는

표 4. 사용 언어

구분	1964 ~1974	1975 ~1983	1984 ~1993	1994 ~2003	2004 ~2013	전체
한국어	47 (97.9%)	45 (95.7%)	50 (100%)	55 (80.9%)	90 (90.9%)	287 (92.0%)
영어	2 (4.2%)	6 (12.8%)		14 (20.6%)	9 (9.1%)	31 (9.9%)
기타		1 (2.1%)		1 (1.5%)	1 (1.0%)	3 (1.0%)
합계	48* (100%)	47** (100%)	50 (100%)	68*** (100%)	99**** (100%)	312 (100%)

* 한국어/영어 중복 게재 1건

** 한국어/영어 중복 게재 5건

*** 한국어/영어 중복 게재 1건, 한국어/중국어 중복 게재 1건

**** 한국어/중국어 중복 게재 1건

데, 이것은 당시 연구소의 국제교류가 상당히 활발했음을 보여 주는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4. 저자 분석

1) 저자 수

지난 50년 동안 『언론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 312편의 저자 수는 모두 435명이었다. 따라서 편당 평균 저자 수는 1.4명인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1964년 창간호부터 학과 체제로 전환하기 전인 1974년까지의 제1기를 보면, 단독 저자 논문이 32편

18 17집(1980)에 게재된 박유봉의 독일어 논문(Die kulturelle Einflüsse auf die koreanische Presse).

표 5. 『언론정보연구』 게재 논문 저자 수

구분	1964 ~1974	1975 ~1983	1984 ~1993	1994 ~2003	2004 ~2013	전체
1명	32 (66.7%)	47 (100%)	44 (88.0%)	61 (89.7%)	60 (60.6%)	244 (78.2%)
2명	6 (12.5%)		5 (10.0%)	4 (5.9%)	28 (28.3%)	43 (13.8%)
3명	1 (2.1%)			2 (2.9%)	7 (7.1%)	10 (3.2%)
4명	5 (10.4%)			1 (1.5%)	2 (2.0%)	8 (2.6%)
5명	1 (2.1%)				1 (1.0%)	2 (0.6%)
6명	3 (6.3%)		1 (2.0%)		1 (1.0%)	5 (1.6%)
합계	48 (100%)	47 (100%)	50 (100%)	68 (100%)	99 (100%)	312 (100%)
평균 저자수	1.9	1.0	1.2	1.2	1.6	1.4

으로 전체의 66.7%였지만, 2인 공저 논문이 6편(12.5%), 3인 공저 논문이 1편, 4인 공저 논문이 5편, 5인 공저 논문이 1편, 6인 공저 논문이 3편으로, 3인 이상 공저 논문이 모두 10편(20.8%)이어서 평균 저자 수도 1.9명에 이르렀다. 이들 3인 이상 공저 논문은 신문연구소 초창기에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공동 연구한 것으로 모두 1964년(1집)에서 1968년(4집) 사이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1975년부터 1983년까지의 제2기에 게재된 논문 47편은 모두 단독으로 작성된 논문이었고, 제3기(1984~1993년)와 제4기(1994~2003년)에도 단독 논문 비율이 약 90%에 달할 정도로 공저 논문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제5기(2004~2013년)에는 단독 논문이 약 61%, 2인 공저가 약 28%, 3인 이상 공저가 약 11%로 공저 논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논문당 평균 저자 수도 1.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술지 등재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공동 연구가 활발해진 최근의 학계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저자 집중도

『언론정보연구』의 논문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른바 ‘저자 집중도’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6>은 개인별 논문 게재 빈도를 보여 준다. 우선 전체 저자 기준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이는 차배근이었다. 그는 총 27편의 논문을 발표해 전체 저자 수의 6.2%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는 19편을 발표한 김규환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였고, 세 번째는 14편(3.2%)을 발표한 추광영이었다. 네 번째는 10편을 게재한 박승관, 다섯 번째는 각각 8편씩을 게재한 강명구, 양승목, 이상희 순이었다. 전체 저자 435명 가운데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수 저자 239명을 기준으로 저자 집중도를 계산한 결과, 상위 0.8%(2명)의 저자가 전체 논문의 10%, 상위 2.9%(7명)의 저자가 전체 논문의 20%, 상위 5.4%(13명)의 저자가 전체 논문의 30%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중도 경향을 전체 저자가 아닌 제1저자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제1저자로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이는 차배근으로 총 26편으로 전체 제1저자 수의 8.3%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는 19편을 발표한 김규환으로 6.1%를 차지하였고, 세 번째는 14편(4.5%)을 발표한 추광영이었다. 마찬가지로 전체 1저자 312명 가운데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수 저자 158명을 기준으로 저자 집중도를 계산한 결과, 상위 2.5%(4명)의 저자가 전체 논문의 20%, 상위 5.1%(8명)의 저자가 전체 논문의 30%, 상위 8.9%(14명)의 저자가 전체 논문의 40%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기준은 없지만, 5% 내외의 저자가 전체 논문의 30%, 10% 내외의 저자가 전체 논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집중도가 높은 편이라 하겠다. 이것은 대학 연구소가 발간하는 내부(in-house) 학술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언론정보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선정된 이후 다양한 저자들의 논문이 게재되면서 저자 집중도는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

한편 저자 소속이나 직위 같은 집단적 속성 차원에서 저자 집중도

표 6. 저자별 게재 논문 수

전체 저자 기준					제1저자 기준				
순위	성명	건수	비율 (%)	누적비율 (%)	순위	성명	건수	비율 (%)	누적비율 (%)
1	차배근	27	6.2	6.2	1	차배근	26	8.3	8.3
2	김규환	19	4.3	10.6	2	김규환	19	6.1	14.4
3	추광영	14	3.2	13.8	3	추광영	14	4.5	18.9
4	박승관	10	2.3	16.1	4	박승관	9	2.9	21.8
5	강명구	8	1.8	17.9	5	강명구	8	2.6	24.3
	양승목	8	1.8	19.8		이상희	8	2.6	26.9
	이상희	8	1.8	21.6	7	강현두	7	2.2	29.1
8	강현두	7	1.6	23.2		박명진	7	2.2	31.4
	박명진	7	1.6	24.8	9	양승목	6	1.9	33.3
	이재현	7	1.6	26.4		박유봉	5	1.6	34.9
11	정수경	6	1.4	27.8		오두범	5	1.6	36.5
	12	김은미	5	1.1	29.0	10	윤석민	5	1.6
박유봉		5	1.1	30.1	이재현		5	1.6	39.7
오두범		5	1.1	31.3	조명한		5	1.6	41.3
윤석민		5	1.1	32.4					
조명한		5	1.1	33.6					
전체		435	100	100	전체		312	100	100

를 살펴볼 수도 있다. 『언론정보연구』가 대학 연구소 발행 학술지이므로 일정 부문 폐쇄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정도와 시기별 변화 양상은 실제 어떠한지를 통해 외부 개방성 정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게재 논문별 1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전체 312편의 논문 가운데 제1저자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신문연구소), 신문대학원, 언론정보학과(신문학과) 소속인 경우는 182편

표 7. 제1저자의 소속과 직위

구분		내부			외부		전체	
		언론 정보	비언론 정보	교외/ 동문	교외/ 비동문	해외		
전 문	전임교수/ 연구원	132 (42.3%)	7 (2.2%)	39 (12.5%)	33 (10.6%)	26 (8.3%)	237 (76.0%)	266 (85.3%)
	비전임교수 /연구원	10 (3.2%)	3 (1.0%)	9 (2.9%)	7 (2.2%)		29 (9.3%)	
일 반	대학원생/ 연구생	39 (12.5%)			5 (1.6%)		44 (14.1%)	46 (14.7%)
	기타	1 (0.3%)		1 (0.3%)			2 (0.6%)	
전체		182 (58.3%)	10 (3.2%)	49 (15.7%)	45 (14.4%)	26 (8.3%)	312 (100%)	
		241 (77.2%)			71 (22.8%)			

* 괄호 안 퍼센트는 전체(312편) 대비

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하였고, 서울대학교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언론정보연구소(신문연구소)나 언론정보학과(신문학과) 이외 소속 저자의 논문은 10편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였다. 논문 게재 당시의 소속은 서울대학교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나 신문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출신 동문 저자의 논문은 49편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하였다. 반면 소속이 서울대학교도 아니고 동문 출신도 아닌 저자의 논문은 45편으로 전체의 14.4%, 이와 더욱 거리가 먼 해외 저자의 논문은 26편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였다. 크게 서울대학교 소속이거나 동문 여부를 기준으로 내부 저자와 외부 저자로 구분해 보면 내부 저자의 비율이 77.2%에 이르는 셈이다.

다음으로 제1저자의 직위를 기준으로 보면 대학 전임교수이거나 국책 연구기관 또는 언론사 전임연구원의 논문이 237편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였다. 제1저자가 비전임 교수이거나 연구원인 경우는 29편(9.3%)이었다. 대학원생이나 연구생이 제1저자로 쓴 논문은 44건

으로 전체의 14.1%였다. 제1저자의 직위를 크게 전문 연구자와 일반 연구자로 구분해보면, 전문 연구자의 논문이 266건으로 전체의 85.3%에 이르렀다.

제1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보면, 가장 대표적인 저자 유형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신문연구소, 신문대학원 포함) 교수/연구원 집단 이었고(132건), 다음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출신 동문 교수/연구원 집단(39건)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신문연구소, 신문대학원 포함) 대학원생/연구생 집단(39건)이었다.

이처럼 『언론정보연구』 저자는 특성상 서울대 내부 전문 연구자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8>은 제1저자의 소속을 시기별로 나눈 결과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서울대 언론정보 출신 저자의 비율이 제1기(1964~1974년)에는 거의 90%에 이르렀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낮아져 제5기(2004~2013년)에는 31%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교외/비동문 1저자의 비중은 2003년까지는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가 2004년

표 8. 시기별 제1저자 소속

구분	1964 ~1974	1975 ~1983	1984 ~1993	1994 ~2003	2004 ~2013	전체
언론정보	43 (89.6%)	35 (74.5%)	37 (74.0%)	36 (52.9%)	31 (31.3%)	182 (58.3%)
비언론정보	2 (4.2%)	3 (6.4%)	1 (2.0%)		4 (4.0%)	10 (3.2%)
교외/동문		5 (10.6%)	9 (18.0%)	15 (22.1%)	20 (20.2%)	49 (15.7%)
교외/비동문	3 (6.3%)	1 (2.1%)		3 (4.4%)	38 (38.4%)	45 (14.4%)
해외		3 (6.4%)	3 (6.0%)	14 (20.6%)	6 (6.1%)	26 (8.3%)
전체	48 (100%)	47 (100%)	50 (100%)	68 (100%)	99 (100%)	312 (100%)

표 9. 학술지 등재 여부와 제1 저자의 소속

구분	미등재	등재(등재후보+등재)	전체
내부	205 (86,5%)	36 (48,0%)	241 (77,2%)
외부	32 (13,5%)	39 (52,0%)	71 (22,8%)
전체	237 (100%)	75 (100%)	312 (100%)

이후로는 가장 많은 38.4%에 이르렀다. 즉 저자 소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는 『언론정보연구』의 폐쇄적 성격이 상당히 희석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측을 보다 확인하기 위해 학술지 등재 여부에 따라 제1저자의 소속을 구분하였는데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에서 보듯이 학술지 미등재 시기에는 전체 논문의 86.5%가 내부 저자의 논문이었으나, 등재(후보)지가 된 이후에는 외부 저자의 논문(52%)이 내부 저자(48%)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내부 저자 집중도는 학술지 등재 이후 크게 완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논문내용 분석

1) 연구패러다임

『언론정보연구』에 게재된 총 312편의 논문을 내용분석한 결과 실증적 논문은 117편(37.5%), 비실증적 논문은 195편(62.5%)으로 비실증 논문의 비율이 더 높았다(<표 10> 참조). 하지만 논문의 패러다임은 시기 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1기(1964~1974년)까지는 신문연구소와 신문대학원의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게재 논문의 60% 이상이 실증 논문이었다. 반면 1975년부터 실증 논문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2003년까지 비실증 논문이 전체 논문의 70% 이상을 점유하였다. 이는 단순한

표 10. 시기별 논문 패러다임

구분	1964 ~1974	1975 ~1983	1984 ~1993	1994 ~2003	2004 ~2013	전체
실증주의	29 (60.4%)	12 (25.5%)	15 (30.0%)	17 (25.0%)	44 (44.4%)	117 (37.5%)
비실증주의	19 (39.6%)	35 (74.5%)	35 (70.0%)	51 (75.0%)	55 (55.6%)	195 (62.5%)
전체	48 (100%)	47 (100%)	50 (100%)	68 (100%)	99 (100%)	312 (100%)

조사연구보다는 이론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과 무관하지 않고, 또 1980년대 언론학계의 패러다임 논쟁과도 관련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2004년 이후부터는 다시 실증 논문의 비중이 높아져, 최근 10년간(제5기) 게재논문의 실증 연구와 비실증 연구의 비율은 약 44:56으로 나타났다.

2) 데이터 및 연구의 성격

『언론정보연구』의 게재논문을 데이터 활용 방식과 연구의 성격에 따라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질적 데이터를 활용한 해석적 논문의 비중이 35.9%로 가장 높았고, 데이터 없이 순수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거나 이론적 모형을 탐구하는 논문이 26.3%를 차지했다. 양적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가운데 가설검증 방식을 활용한 논문은 8.7%, 양적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가설 없이 연구문제만 제시한 기술적 논문은 21.8%였다. 정책연구는 전체 논문의 4.5%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제1기(1964~1974년)에는 양적-기술적 논문의 비중(39.6%)이 가장 높았던 반면, 제2기(1975~1983년)에는 순수이론/모형탐구 논문이 전체의 6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3기(1984~1993년)부터 질적-해석

표 11. 시기별 논문 데이터/연구성격

구분	1964 ~1974	1975 ~1983	1984 ~1993	1994 ~2003	2004 ~2013	전체
양적-가설검증	4 (8.3%)	2 (4.3%)	6 (12.0%)	6 (8.8%)	9 (9.1%)	27 (8.7%)
양적-기술적	19 (39.6%)	7 (14.9%)	6 (12.0%)	8 (11.8%)	28 (28.3%)	68 (21.8%)
질적-해석적	8 (16.7%)	8 (17.0%)	20 (40.0%)	36 (52.9%)	40 (40.4%)	112 (35.9%)
순수이론연구	13 (27.1%)	28 (59.6%)	16 (32.0%)	11 (16.2%)	14 (14.1%)	82 (26.3%)
정책연구			2 (4.0%)	4 (5.9%)	8 (8.1%)	14 (4.5%)
기타	4 (8.3%)	2 (4.3%)		3 (4.4%)		9 (2.9%)
전체	48 (100%)	47 (100%)	50 (100%)	68 (100%)	99 (100%)	312 (100%)

적 논문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는데 제4기(1994~2003년)에는 절반이 넘는 논문이 이에 속했다. 제5기(2004~2013년)에도 질적-해석적 논문 비중(40.4%)이 가장 높은 가운데 양적-기술적 논문의 비중(28.3%)이 다시 증가하였고, 순수이론 논문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14.1%)을 나타냈다.

이처럼 데이터와 연구의 성격 면에서 『언론정보연구』는 양적 논문과 질적 논문, 이론 논문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이론 논문의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3) 연구영역

『언론정보연구』는 다양한 연구영역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언론학의 전통적 연구 분야인 저널리즘/정치커뮤

표 12. 시기별 논문 연구영역

구분	1964 ~1974	1975 ~1983	1984 ~1993	1994 ~2003	2004 ~2013	전체
언론사	6 (12,5%)	6 (12,8%)	3 (6,0%)	9 (13,2%)	8 (8,1%)	32 (10,3%)
법제/윤리 사상	6 (12,5%)	9 (19,1%)	2 (4,0%)	3 (4,4%)	4 (4,0%)	24 (7,7%)
저널리즘 정치컴	12 (25,0%)	1 (2,1%)	8 (16,0%)	10 (14,7%)	18 (18,2%)	49 (15,7%)
방송	4 (8,3%)	1 (2,1%)	5 (10,0%)	7 (10,3%)	14 (14,1%)	31 (9,9%)
인터넷 SNS				5 (7,4%)	15 (15,2%)	20 (6,4%)
설득컴 광고홍보	3 (6,3%)	5 (10,6%)	4 (8,0%)	3 (4,4%)	2 (2,0%)	17 (5,4%)
문화연구 문화사	1 (2,1%)	1 (2,1%)	1 (2,0%)	4 (5,9%)	13 (13,1%)	20 (6,4%)
대인컴	1 (2,1%)	2 (4,3%)		1 (1,5%)	1 (1,0%)	5 (1,6%)
국제컴	2 (4,2%)	3 (6,4%)	11 (22,0%)	4 (5,9%)	3 (3,0%)	23 (7,4%)
지역/ 수용자연구	7 (14,6%)		1 (2,0%)		9 (9,1%)	17 (5,4%)
연구동향 학문정체성		4 (8,5%)	2 (4,0%)	9 (13,2%)		15 (4,8%)
방법론			5 (10,0%)		2 (2,0%)	7 (2,2%)
언론학교육		2 (4,3%)	1 (2,0%)	4 (5,9%)	3 (3,0%)	10 (3,2%)
국민생활 시간조사		3 (6,4%)		5 (7,4%)	2 (2,0%)	10 (3,2%)
기타	6 (12,5%)	10 (21,2%)	7 (14,0%)	4 (5,9%)	5 (5,0%)	32 (10,2%)
전체	48 (100%)	47 (100%)	50 (100%)	68 (100%)	99 (100%)	312 (100%)

니케이션(15.7%), 언론사(10.3%), 방송(9.9%)의 비중이 다소 높은 가운데, 인터넷/SNS 같은 신규 영역의 논문 비중이 최근 들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즉 인터넷/SNS 관련 연구는 제4기(1994~2003년)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제5기(2004~2013년)에는 15.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언론학에서 비교적 연구자가 많은 영역으로 간주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광고홍보(5.4%)와 문화연구/문화사(6.4%) 분야의 비중이 『언론정보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보 발행 환경과 당시 학계의 주요 관심 분야 등이 비교적 선명히 드러난다. 제1기(1964~1974년)는 저널리즘/정치커뮤니케이션의 비중(25.0%)과 농촌 지역 수용자연구의 비중(14.6%)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저널리즘 교육과 매스컴 현장 수용자 연구가 활발했던 초창기 신문연구소와 신문대학원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2기(1975~1983년)에는 학문의 정체성과 사상적 배경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법제/윤리/사상 분야(19.1%)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제3기(1984~1993년)에는 당시 언론학자들의 관심이 컸던 국제커뮤니케이션(22.0%) 분야의 논문이 특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제4기(1994~2003년)에는 이른바 뉴 밀레니엄 시기를 맞이하여 국내외 학문동향을 정리하고 전망한 연구(13.2%)가 비교적 많았다.

전체적으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언론정보연구』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연구 분야가 있다. 언론학의 연구동향 및 정체성(4.8%), 연구방법론(2.2%), 언론학 교육(3.2%), 국민생활시간조사 분석(3.2%) 등이 그것이다. 『언론정보연구』는 해외와 국내의 언론학 연구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언론학의 정체성 강화에 힘썼고, 이의 연장선에서 방법론과 교육 방안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더불어 1981년부터 시작된 국민생활시간조사 연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고유한 연구자원으로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논문도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

한편 제1기부터 제3기까지 ‘기타’로 분류된 논문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특히 제2기(1975~1983년)의 경우 20%를 상회하였다. 이는 ‘기타’에 문헌목록, 연구노트, 서평, 번역논문 같은 것들이 포함된 탓도 있

지만, 과거 신문대학원 소속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배경과 관심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심리학 전공의 조명한 교수는 “연상적 의미와 우리말 연상사전의 작성”(1969), “보편성과 개별성에 관한 언어 심리학적 고찰”(1979)과 같은 논문을 수차례 게재했는데 언론학의 특정 연구영역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1980년대에는 현상학, 사회학, 정치경제학 분야의 논문이 종종 게재되었다.

4) 연구방법

『언론정보연구』 게재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또는 규범적 연구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0.6%로 가장 많았다(〈표 13〉 참조). 양적 연구방법 가운데는 서베이(11.9%)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용분석(7.4%), 실험(5.1%) 방법론 순이었다. 질적 연구방법 중에는 역사적 방법론(10.6%)이 가장 많았고, 내러티브/담론분석(3.8%), 심층인터뷰(2.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2차 분석과 네트워크분석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도 일부 보였다. 즉 2차 분석은 전체적으로는 5.8%지만, 제5기(2004~2013년)에는 10.1%로 증가했고, 네트워크분석도 제5기(2004~2013년)에 6.1%로 나타났다.

제1기(1964~1974년)에는 문헌연구/규범적 연구방법 논문이 33.3%였고 역사적 연구(14.6%)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서베이(25.0%), 내용분석(18.8%), 실험(6.3%) 등 양적 방법론을 사용한 실증적 논문이 많아 비교적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이후 30년간 문헌연구 방법론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60% 이상), 서베이와 내용분석 등의 양적 방법론을 사용한 논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론적 연구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즉 제5기(2004~2013년)에는 다시 문헌연구/규범적 연구의 비중(38.4%)이 낮아지고 다양한 연구방법이 골고루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3. 시기별 논문 연구방법

구분	1964 ~1974	1975 ~1983	1984 ~1993	1994 ~2003	2004 ~2013	전체
문헌연구/ 규범적	16 (33.3%)	32 (68.1%)	30 (60.0%)	42 (61.8%)	38 (38.4%)	158 (50.6%)
서베이	12 (25.0%)	7 (14.9%)	3 (6.0%)	5 (7.4%)	10 (10.1%)	37 (11.9%)
내용분석	9 (18.8%)		2 (4.0%)	3 (4.4%)	9 (9.1%)	23 (7.4%)
실험	3 (6.3%)	2 (4.3%)	4 (8.0%)	1 (1.5%)	6 (6.1%)	16 (5.1%)
역사적	7 (14.6%)	3 (6.4%)	4 (8.0%)	9 (13.2%)	10 (10.1%)	33 (10.6%)
내러티브/ 담론분석		1 (2.1%)	3 (6.0%)	3 (4.4%)	5 (5.1%)	12 (3.8%)
심층인터뷰				1 (1.5%)	8 (8.1%)	9 (2.9%)
2차분석			3 (6.0%)	5 (7.4%)	10 (10.1%)	18 (5.8%)
네트워크 분석				1 (1.5%)	6 (6.1%)	7 (2.2%)
기타	1 (2.1%)	2 (4.3%)	2 (4.0%)		2 (2.0%)	7 (2.2%)
전체	48 (100%)	47 (100%)	50* (100%)	68** (100%)	99*** (100%)	312 (100%)

* 중복코딩 1건: 내용분석 + 담론분석

** 중복코딩 2건: 내용분석 + 담론분석, 서베이 + 심층인터뷰

*** 중복코딩 5건: 서베이 + 내용분석, 서베이 + 심층인터뷰, 서베이 + 네트워크분석, 실험 + 내용분석, 2차분석 + 네트워크분석

5) 연구대상 국가

『언론정보연구』 게재 논문의 대부분은 한국의 사회현상과 데이터에 근거한 논문이지만, 해외의 사회현상 또는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된 논문도 일부 있다. <표 14>를 보면 전체 312편의 논문 가운데 51편(16.3%)

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경우다. 국가별로는 미국(6.1%)이 가장 많았고, 중국(5.8%), 일본(3.8%) 순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제2기(1975~1983년)에 미국이 연구대상이 된 논문이 17%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언론학의 이론과 연구 동향을 소개한 논문이 많았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다뤘기 때문이다. 제3기(1994~2003년)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논문(10.3%)이 많았는데 그것은 한중 수교 이후 활발해진 양국 교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등 서구권은 독일, 프랑스, 러시아 대상 논문이 1993년 이전까지 간헐적으로 나타났으나 1994년 이후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런 결과는 『언론정보연구』의 학문적 관심이나 언론정보연구소의 국제 교류가 미국, 중국, 일본의 3국 중심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고 하겠다.

표 14. 시기별 논문 대상국가

구분	1964 ~1974	1975 ~1983	1984 ~1993	1994 ~2003	2004 ~2013	전체
한국	41 (85.4%)	34 (72.3%)	42 (84.0%)	54 (79.4%)	90 (90.9%)	261 (83.7%)
미국	2 (4.2%)	8 (17.0%)	1 (2.0%)	5 (7.4%)	3 (3.0%)	19 (6.1%)
중국	3 (6.3%)	1 (2.1%)	3 (6.0%)	7 (10.3%)	4 (4.0%)	18 (5.8%)
일본	3 (6.3%)	5 (10.6%)		2 (2.9%)	2 (1.0%)	12 (3.8%)
유럽/러시아	2 (4.2%)	1 (2.1%)	3 (6.0%)			4 (1.3%)
기타 (남미/중동)			1 (2.0%)		1 (1.0%)	2 (0.6%)
합계	48* (100%)	47** (100%)	50 (100%)	68 (100%)	99*** (100%)	312 (100%)

* 중복코당: 중국+일본 3건

** 중복코당: 미국+일본 2건

*** 중복코당: 중국+일본 1건

6. 결론

『언론정보연구』는 지난 50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서울대학교 및 언론정보연구소의 변화와 외부적으로는 세계 언론학계의 큰 흐름과 상호작용하며 변화 발전해 왔다. 『언론정보연구』는 1964년에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에 의해 『신문연구소학보』란 제호로 창간되었다. 비록 대학 부설의 일개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였지만, 신문연구소가 국내 최초의 언론학 연구소였던 만큼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아직 이론과 방법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1960년대에, 『신문연구소학보』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지향한 신문연구소와 신문대학원 구성원들의 연구 성과를 고스란히 담음으로써 우리나라 언론학 연구에 이정표(milestone) 구실을 했다. 1975년 신문대학원이 폐지되고 언론정보학과(구 신문학과) 체제로 바뀐 후에는 언론사(言論史)와 같은 전통적 연구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이론적·방법론적 연구들을 게재함으로써 한국 언론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또 매스컴 수용자조사, 국민생활시간조사와 같은 조사연구를 통해 경험적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도 의미 있는 연구들을 생산해 내었다. 언론학의 미래와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이론적 연구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언론학계의 많은 학술지들과 구별되는 『언론정보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언론정보연구』는 대학 연구소 발행 학술지라는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방성과 다양성 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후에 서울대학교 내부보다 외부 저자 비율이 더 커졌으며 논문의 주제와 연구방법도 다양해졌다. 특히 2010년에 판형과 발간 방식이 대폭 바뀌면서 『언론정보연구』는 이제 더 이상 일개 대학 연구소의 학술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언론학도에게 개방된 학술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즉 47권 1호부터 외부의 대형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한정 수량의 비매품이었던 『언론정보연구』를 일반 서점에서 구입 가능한 유료 판매품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언론정보연구』

편집위원회는 기획논문 체제를 도입해 인접 학문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시의성과 이론적 가치가 높은 주제들을 발굴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폭 넓은 독자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이제 『언론정보연구』는 50년 역사를 뒤로 하고 창간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언론정보연구』가 지향해야 할 길은 무엇인가? 각종 학회가 발간하는 언론학 관련 학술지가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다매체 상황인 지금, 『언론정보연구』는 어느 학술지보다 치열하게 '이론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언론학은 20세기 매스미디어 시대에 사회적 수요를 밀천삼아 제도적으로 급성장했지만,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이론적 빈곤으로 정체성 위기에 처해 있다(Yang, 2009). 미디어 환경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오늘날, 과거 매스미디어 시대의 이론으로는 더 이상 설명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 사회과학이 모두 팔 걷고 나선 지금, 자칫 머뭇거리다간 언론학이 설 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양승목 (2009). 언론학 연구 50년: 성찰과 전망. 한국언론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언론학회 50년사』(1019~1062쪽). 한국언론학회.
- 육지수 (1964). 발간에 즈음하여.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학보』, 1권, 3.
- 차배근 (2001). 조선조후기의 북학론을 다시 생각해 본다: 중국언론에 관한 특집에 제하여. 『언론정보연구』, 38권, 7~32.

Fink, E. J. & Gantz, W. (1996). A content analysis of three mass communication traditions: Social science, interpretive, and critical analysi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3(1), 114~134.

Potter, W. J., Cooper, R., & Dupagne, M. (1993). The three paradigms of mass media research in mainstream communication journals. *Communication Theory*, 3(4), 317~335.

Yang, SM.(2009). Institutional success and declining disciplinary identity of Korean communication research. *Asian Communication Research*, 6(1/2), 66~82.

최초 투고일: 2013.06.28

논문 수정일: 2013.08.05

게재 확정일: 2013.08.08

부록: 『언론정보연구』 내용분석 코드북

1. 논문 코드 : □□□□ (발행연월 및 권호 정보, 등재여부 파악)

2. 논문 성격

1) 일반논문 2) 특집논문 3) 기타 (번역 등)

3. 연속 논문 여부

1) 1부 2) 2부 3) 3부

4. 사용 언어 (2개까지 선택)

1) 한국어 2) 영어 3) 기타

5. 저자수 : □명

6. 저자 속성 (2저자까지만 분석)

6-1-1. 1저자의 소속

1)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신문학과/신문대학원/연구소)
 2) 서울대 비언론정보학과
 3) 교외/동문 4) 교외/비동문

6-1-2. 1저자의 직위

1) 전임교수/연구원 2) 비전임교수/연구원
 3) 학생(과정생/수료생/연구생) 4) 기타

6-2-1. 2저자의 소속

- 1)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신문학과/신문대학원/연구소)
- 2) 서울대 비언론정보학과
- 3) 교외/동문
- 4) 교외/비동문

6-2-2. 2저자의 직위

- 1) 전임교수/연구원
- 2) 비전임교수/연구원
- 3) 학생(과정생/수료생/연구생)
- 4) 기타

7. 패러다임

- 1) 실증주의
- 2) 비실증주의(비판연구, 해석연구)

8. 데이터/연구성격

- 1) 양적-가설검증 연구
- 2) 양적-기술적(descriptive) 연구 (가설 없고 연구문제만 제시)
- 3) 질적-해석적 연구 (문화연구, 역사, 법제, 윤리 포함)
- 4) 순수이론연구/모형탐구 (데이터 없음)
- 5) 정책연구 (연구목적상 정책연구가 명백한 경우)
- 6) 기타

9. 연구영역

- 1) 역사(언론사/언론학사)
- 2) 미디어 법제/윤리/사상
- 3) 저널리즘/정치커뮤니케이션 (방송뉴스, 인터넷뉴스 포함)
- 4) 방송(TV/라디오)/케이블/위성/DMB
- 5) 인터넷/SNS/모바일/HCI
- 6) 설득커뮤니케이션/광고/홍보
- 7) 문화연구/문화사(영화연구 포함)

- 8) 대인커뮤니케이션/수사학
- 9) 국제커뮤니케이션
- 10) (농촌) 수용자 연구
- 11) 커뮤니케이션 연구동향/정체성
- 12)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
- 13) 언론학교육
- 14) 국민생활시간조사
- 15) 기타

10. 연구방법 (2개까지 선택)

- 1) 실험
- 2) 서베이
- 3) 내용분석
- 4) 2차분석(secondary analysis)
- 5) 역사적
- 6) 규범적(특정 연구방법과 무관)/문헌연구/사례조사
- 7) 담론분석/내러티브(텍스트) 분석
- 8) 심층면접
- 9) 네트워크분석
- 10) 기타

11. 대상국가 (2개까지 선택)

- 1) 한국
- 2) 미국
- 3) 중국
- 4) 일본
- 5) 유럽/러시아
- 6) 기타